

복음과 삶의 절대미션을 실현한 70인 제자 디모데

-복음으로 여는 디모데전서-

열왕기하 2:1-6, 디모데전서 1:2-7

정윤돈 목사님

* **왕하2:1-6** 여호와께서 히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뱀엘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뱀엘로 내려가니 뱀엘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 **딤후1:2-7**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준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열두 가지 속에 담겨있는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차별죄, 조상의 죄, 모든 죄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강단의 제자가 되어 237 살리는 제자가 되도록 하옵소서. 오늘 상처를 입고 병든 사람이 있다면 치유받게 하시고 낙심한 자는 힘을 얻도록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후대를 위해 생명 길 이유를 발견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고 도전할 구체적인 나와 교회와 나라의 미션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다. 열왕기하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뱀엘로 보내신다’, 4절에는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6절에는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라고 했다. 교회에서 켈리그라피와 서예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선생님이 중요하다. 뭘 하든 10년은 해야 초보를 면하고, 20년은 해야 작품이 나온다. 제가 다니는 수상스키를 배우는 곳은 30년 하신 분이 가르치신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분야든 잘 배워야 한다. 창작은 여러 가지 내용을 잘 배우고 베낄 때 나온다. 엘리야는 엘리사의 스승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고, 엘리사는 스승을 잘 알아봤다. 스승을 잘 알아봐야 따라갈 수 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다.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스승을 따라가지 않으면 망한다. 함

게 지옥간다. 여러분이 잘 알아봐야 한다. 잘 알아보려면 내가 먼저 정확해야 한다. 어느 분야든 스승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배워야 한다. 스승도 단계가 있다. 초급, 중급, 고급단계가 있다. 특히 복음과 진도를 알려주는 선생님이 있다는 것이 축복 중의 축복이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항상 배우려고 해야 한다. 그렇게 10년, 20년 성실하게 배우면 그 분야에서 서밋이 된다. 그 스승에 그 제자라는 말이 있듯이 결국 엘리사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갑절의 축복이라는 말은 장자의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을 의미한다.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스승과 제자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이다. 디모데는 스승인 사도 바울이 부탁한 어려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이유 있는 절대순종과 복종을 하였다. 결국 디모데는 237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한 대표적인 70인 제자로 쓰임받았다. 엘리사와 디모데와 같은 그 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목사님이 하라는 걸 그대로 하는 사람은 복이 30배, 60배, 100배다. 처음에는 순종에 이유를 모를 수 있지만 계속 순종하다보면 축복 속에 있음을 나중에 알 수 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응답과 상관이 없어진다. 평소에 기도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가장 가치있는 인생의 이유를 알아야 한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른다.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받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쓰임받기 위해 살아간다. 아무도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신다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 된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깨닫는다면 그 뒤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생각했던 절대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70현장을 살릴 절대제자 디모데와 당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던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권면과 미션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1. 사도 바울이 절대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한 미션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첫 번째 미션은 에베소교회에 파고든 잘못된 신앙과 영적상태를 바로 잡는 것이었다. 정확한 복음의 내용과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 줄 수 있다. 짧은 시간 에베소교회가 부흥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맡기고 마게도냐로 갔다. 때로는 ‘왜 내가 이걸 해야 하지?’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건 사실 여러분이 축복받는 길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편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금 조금 희생하면 나중에 더 큰 복이 올 것인데 피한다. 작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고 요령을 피운다. 서밋이 될 수 없다. 일단 예수를 그리스도로 결론내지 않으면 다른 것보다 먼저 그리스도로 결론부터 내야 한다. 결론내지 못하고 성공하면 성공하는 만큼 망하기 때문이다. 나중에야 마귀에게 더 크게 당한다. 일단 그리스도로 결론내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 냈다면 현장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능도 배우고 운동도 하고 악기도 배우고 준비해야 한다. 명문대학은 공부만 잘해서 갈 수 없다. 국회의원도 되고 해도 체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건강관리도 해야 한다. 후대들은 그 현장에 가야 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었고 영력과 인격과 모든 것을 보고 맡겼다. 맡겼다면 생명 걸어야 한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도 바울 당신이 하지 왜 나한테 하라고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디모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명하여 가르치라고 했다. 인간관계에 부딪히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언약을 붙잡고 이유있는 순종을 통해 지혜롭게 그 일들을 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 교훈은 율법주의를 의미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과 역할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즉, 율법은 죄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율법을

100%로 지킬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대속의 희생양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2) 두 번째 미션은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이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은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고 복음을 막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항상 나라의 지도자와 상관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 사람들에게 사단이 틈타면 우리에게 피해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틈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 세 번째로 교회의 목사와 교역자들에 대한 자세와 자격에 대한 미션의 말씀해 주고 있다. 디모데에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신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7절을 보겠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순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감독은 목회자와 어른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목회자나 지도자는 대단히 잘하는 것보다 큰 문제가 없어야 한다. 큰 문제만 없어도 훌륭한 부모님과 지도자들이 될 수 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이런 지도자가 많지 않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어서 3장 8절에서 12절에서는 집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말씀하고 있다. 이 조건들은 구원과는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3장 13절에 보면 이러한 삶을 살면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다. 자신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다. 인간인지만 나의 삶과 잘못이 나를 짓누른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다. 전도할 때 편하지 않다. 구원하고는 관계가 크지 않다. 이번에 사이판에 전도캠프를 갔는데 우리를 인도한 가이드가 10년 중 가장 행복해 보이는 팀이었다고 말했다.

(4) 4장에는 거짓교사에 대하여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신천지 같은 곳은 다 거짓말이다.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거기 가는 것이다. 여기 여러분이 계신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5) 5장과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미션을 말씀하고 있다. 5장과 6장에서 중요한 구절만 몇 개를 찾아보겠다. 디모데전서 5장 2절이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겠다. “행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6장 8절에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단의 규모가 큰데 이 안에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떠났다. 전도를 먼저 생각해야지, 이권을 먼저 생각하면 절대 함께 갈 수 없다. 돈을 사랑하고 이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생명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8절을 보겠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 인생의 절대 목적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다. 선한 사업이 복지, NGO, 세계를 살리는 일들이다. 돈만 생각하고 성공만 생각하면 공허해진다. 파스칼도 우리 안의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와 중심을 원하신다. 교회와 생명, 세계복음화, 전도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하면 실제 하지 않아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다.

2.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율법에 대하여 설명하신 후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겠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

도 바울이 영적으로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는 율법에 완전히 저든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올 때 사용하셨다.

(2) 또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이 복음 전도의 절대목표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237나라 5천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3) 디모데전서에서는 완전복음을 실현하기 위한 복음의 절대목적을 이정표로 주고 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겠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수학에도 증명이 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깨달았는지를 증명하는 방법이 이 사도 바울의 절대목표 세 가지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것의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 두 번째는 선한 양심,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우리의 사랑도 믿음에 근거해야 한다. 기준, 수준, 표준이 말씀에 근거되어야 한다. 우리의 감정은 항상 바뀌기 때문이다.

(4)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주고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자격 없고 무능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전도자의 직분을 맡겨 주셨다. 이것이 은혜 중의 은혜이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겠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은혜에 감사하여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살리는 절대미션을 위해 생명 건 헌신을 하였던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로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실 것이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약한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절대불가능도 절대가능으로 바뀌게 된다.

오늘은 디모데와 같은 절대제자들인 우리들이 237나라 5천 종족복음화를 위하여 도전하여 세팅해야 할 5가지 RUTC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다. RUTC가 뭘까? R은 Remnant, 램넌트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남은 자다. Unity,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Training, 복음으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 Center, 함께 모이는 장소와 모임이다.

① 먼저 제1RUTC운동이다. 제1RUTC운동이란, 복음과 그리스도와 성경적인 전도를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한 모든 메시지와 훈련을 의미한다. 복음화시키는 것이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이해시키는 모든 것이 제1RUTC운동이다.

② 제2RUTC운동이란, 복음운동과 복음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와 건물과 시설을 의미한다. 제2RUTC란, 복지시설, 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함께 모여서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을 의미한다. 20만 평의 덕평의 RUTC가 그 예이다. RUTC도 대, 중, 소 RUTC가 있는 것 같다. 상담소같이 작은 곳, 미션홈과 같은 중간크기, 덕평과 같이 큰 RUTC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③ 세 번째는 제3RUTC이다. 이것은 드러나지 않게 모든 현장에 절대제자들을 파송하는 전도, 선교운동을 의미한다. 복음으로 답과 결론을 낸 후대들을 파송해서 현장을 복음화하고 살리는 것이다.

④ 다음은 제4RUTC운동이다. 이것은 3단계와 무속, 우상, 점술, 이념, 사상, 접신운동 등 사실적으로 사탄의 울무, 틀, 함정에 빠져있는 현장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전도운동을 의미한다.

⑤ 마지막으로 제5RUTC란, 또 다시 복음이 희미해지고 사라진 교회를 살려내는 복음운동을 의미하고 있다. 유럽, 미국, 한국도 마찬가지다. 계속 교회는 문을 닫고 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지나면 복음이 희미해진다. 다시 살려낼 사람이 필요하다. 그 방법이 복음으로 결론 낸 단, 한 명의 제자다.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해서 절대제자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RUTC운동의 주역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 램넌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디모데전서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전달할 미션을 전달받을 언약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처럼 이 복음을 끝까지 이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